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대표 발의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 조례' 우수조례 선정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뽑은 2015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분산돼 있던 기존의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통합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남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사회적 경제 전용 신용보증증서권을 출시해 담보 및 신용능력이 취약한 기업을 지원하고 공공구매 공시제를 도입하는 성과도 올렸다.

우수 조례상 시상식은 12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윤현석기자chadodol@kwangju.co.kr

곡성군여성단체협, 복지시설에 생필품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은련)는 최근 지역 노인요양시설인 '심정골 효도의 집'과 '홍산보금자리'를 방문해 생필품을 기증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황칠코리아, 황칠음료·차 등 해남군에 기증



(주)황칠코리아(대표 정현호)는 최근 1500만원 상당의 황칠음료 '황칠코리아' 1만병을 해남군에 기증했다. 음료는 경로당에서 공동 생활하는 땅끝보통자리 40곳에 전달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인사

- ◆전남개발공사
 - ◇2급 승진 ▲감사실장 정성택
 - ◇3급 승진 ▲경도사업소장 채창선
 - ◇4급 승진 ▲건축사업부 이상원 ▲기획홍보부 이주형 ▲빛가람 사업소 문일영
 - ◇5급 승진 ▲전남관광국 파견 이현수 ▲기획홍보부 김재홍 ▲빛가람사업소 김은지 ▲경도사업소 구만서
- ◇1급 전보 ▲전략기획실장 윤주식
- ◇2급 전보 ▲경영본부장 박영귀
- ◇3급 전보 ▲기획홍보부장 진선화 ▲재무회계부장 윤영주 ▲운영사업부장 김인협
- ◆전남대
 - ▲도서관장 임환모

“하고 싶은 일 도전 하는게 청년의 특권이죠”

세계 길거리음식전문점 '푸드팩커' 창업 안길원·강지은 커플

“배낭여행 다니면서 먹었던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싼 가격에 선보이고 싶었어요. 아직 미숙하지만 전국 체인점을 열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배낭여행을 다녔던 대학생 커플이 현지에서 맛본 길거리 음식에 반해 광주에 '세계 길거리 음식점'을 차렸다. 지난해 8월 전남대 후문 골목에 문을 연 '푸드팩커'(food packer)의 주인장들은 옛된 얼굴의 안길원(24), 강지은(25)씨 커플이다.

이들은 안하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해 1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한 연상연하, 커피스커플(CC)이다.

'푸드팩커'는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야 겨우 눈에 띄는 노란색 간판을 걸고 있다. 33㎡(10평) 남짓 아담한 이 식당은 방학 중임에도 점심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식당 인기메뉴는 '충남밥'. 이는 '김밥' 형태로 취향에 따라 밥에 양배추와 돈가스, 에그 프라이, 만두, 떡갈비 등 톱밥과 소스를 골라 즐길 수 있다. 캄보디아의 대중적인 돼지고기 볶음밥 '바이차'와 볶음면 '미차'도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많아 한끼 식사로 손색 없다.

대만 '스리 아시안'의 명물 '왕자 치즈 김차'와 대만식 닭튀김 '지파이', 영국 '피쉬 앤 칩스', 이탈리아 '슈플리' 등 20여개 다채로운 메뉴를 판매한다. 가격은 3000~5000원으로 저렴하고 각각 맥주도 곁들일 수 있다.

"배낭여행은 어쩌면 '청춘'의 특권이자 소중한 기억이죠.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을 저희를 통해 쉽게 접하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청년 남녀의 취미는 여행이다. 대학 1학

지나해 8월 전남대 후문에 문 열어

배낭여행하며 맛본 미차·지파이 등

20여가지 메뉴에 각각 맥주도 팔아

년 겨울방학에 쌀국수를 먹다가 안씨가 무심결에 내뱉은 "베트남에 가서 진짜 쌀국수 먹어볼까?"라는 말이 이들이 '세계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첫 여행지로 베트남을 찾았던 이들은 방학 때면 해외여행을 떠났다. 과외를 하거나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 등 여행비 마련을 위해 온갖 일을 했다. 안씨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어렵사리 여행경비를 마련해 이들이 떠난 여행지는 태국과 라오스,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아메리카까지 세계 20여개 나라에 달한다.

여행비가 부족한 탓에 음식점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시아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로 허기를 채웠다. 그런데 입맛에 '딱' 맞았다. 이때부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담았다.

"여행 다녀와서 현지에서 먹었던 길거리 음식이 생각나는데, 막상 국내에는 파는 곳이 없었어요. 수소문해 식당을 찾아가면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요리 경험이 없는 이들에겐 음식점 창업 자



지난해 8월 전남대학교 후문에 세계 길거리 음식점 '푸드팩커'를 창업한 안길원(왼쪽)씨와 강지은씨 커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제가 '무리수'였다. 레시피 개발은 한 메뉴당 1~2주 걸렸다. 하루 20차례 이상 같은 음식을 하고, 먹고, 버리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먹은 것을 개워낸 뒤 또다시 먹는 고행(?)을 거쳐야 했다.

초창기 투자비 마련도 난제였다. 서울은 임대료가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강씨의 고향 광주를 개업 적지로 선택했다. 공장 등 알바를 전전해 모은 3000만원을 쏟아부었고, 그래도 부족한 1000만원은 대출받았다.

설레는 맘으로 개업을 했음에도 장사는 '영~' 신통치 않았다. 하루 매출은 고작 5만원 남짓. 돈이 없어 메뉴판도 '파워포인트'로 직접 만들었다. 겨울철에도 '패딩 점퍼'를 살 돈이 아까워 수년째 똑같은 옷을 꺼내고 일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시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6개월 고민 끝에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시작한 첫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홍보비용이 들지 않는 SNS를 이용해 가게를 알렸다. 손님이 늘어 이젠 '단골'도 제법 많다. 지금은 하루 매출 60~8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대기업이 좋다고들 말하지만 '꿈'이 대기업 취업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을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게 '청년'의 매력 아닐까요?"

안길원씨와 강지은씨는 "아직 많이 서툰지만 더 많은 메뉴를 개발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우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미처 여행을 떠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병원 지난해 심장 절개수술 300건 돌파

병원 개원 이래 최초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사진)이 개원 이래 최초로 연간 개심술(심장 절개수술) 300례를 돌파했다.

전남대병원 흉부외과(과장 오상기)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44세의 여성 환자에게 삼첨판막 성형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300번째 개심술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총 304례의 개심술을 시행했다.

개심술이란 심폐바이패스 장비를 이용해 체외순환을 유지한 가운데 심장지를 유도한 후 심장을 절개해 시행하는 모든 수술을 지칭하는 말이며, 통상적으로 심박동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까지 개심술에 포함한다.

연간 개심술 300례 돌파는 이른바 '메이저 심장 수술 센터'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10개 병원만이 채 되지 않으며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는 드문 성과다.

특히 수년간 흉부외과 전공의 고강 현상과 KTX 개통에 따른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우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성과인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윤택림 병원장은 "수술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최저 수준의 수술 사망이나 합병증 발생 등 수술의 질적인 성과 역시 놀랍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흉부외과 의국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965년 개국한 전남대병원 흉부외과는 1977년 12세 여자 환자의 선천성 심기형에 대해 첫 개심술을 시행한 이래 1982년 누적 개심술 100례, 1990년 1,000례에 이어 2014년 5,000례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 흉부외과는 전남대병원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심장센터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국내 의료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구, 진료, 교육 등 의료 분야에 걸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여수 출신 정병탁 전남드래곤즈 초대 감독 별세

프로축구 K리그 전남 드래곤즈 초대 감독인 정병탁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10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여수 출신의 정 감독은 서울 배재고를 거쳐 연세대를 졸업한 뒤 양자축구단과 신탁은행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다.

특히 1963년에 국가대표에 발탁돼 1969년 태국 킹스컵과 1970년 말레이시아 마르데카배 우승에 공헌했다. 1970년에 출범한 국가대표 1진 정통팀에서 초대 주장 완장을 찬 정 감독의 A매치 기록은 39경기 출전에 11골이다.



은퇴 후에는 연세대 감독과 전남 드래곤즈 초대 사령탑을 역임했고, 1995년 연세대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상남(FC서울 코치)씨가 있다. 분향소는 일산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3일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뇌종양 투병 '조선족 리틀 싸이' 전민우 끝내 숨져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조선족 리틀 싸이' 전민우(12)군이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지린(吉林省 연변(延邊)자치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전 군은 2014년 8월 뇌종양의 일종인 뇌간신경교종 판정을 받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1년 6개월여간 투병해오다가 지난 8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 군은 내 살 때부터 중국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2011년 SBS TV '스타킹'에서 '연변 동요'를 불러 국내 시청자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중국의 TV 예능 프로그램 '중국몽상쇼'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불러 '리틀 싸이'로 인기를 모았다.



전 군의 투병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수 싸이가 전 군을 공연장에 초청해 격려하는 등 국내에서도 온정이 이어졌다. 또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광주 출신 리틀싸이 황민우(11)군도 전 군의 병문안을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호전되던 전 군의 상태는 작년 5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해 끝내 병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나광오·노윤순씨 장남 현군 최옥수(광주CBS문화사업국장·김애란씨 차녀 지아양=14일(일) 낮 12시4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열무채움.
- ▲노영복(광양보건대학교 총장)씨 장남 상호군(조선대병원) 이근성씨 장녀 해인양(광양보건대 교수)=16일(화) 오후 6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중친회

- ▲하동정씨 장령공파 종회(회장 정이현) 성묘 및 신령 하례회=13일(토) 오전 11시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영사재 문의 010-8649-5011.
- ▲전주씨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회(회장 이철환) 이화월례회=16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규) 이사·임원회의=20일(토) 오전 11시

- 진주강씨 종회관 3층 062-228-3368, 010-2378-0070.
- ▲전주씨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회(회장 이보희) 이화월례회=22일(월)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하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방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모집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

원=담양겨우저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이탈기씨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부음

- ▲박해동씨 별세 병기(기업은행 삼승테크노 지점장)·형기(전 광주일보 기자)·병두(서울 소재한의원 원장)·시흥(주주크라이나 한국대사관 참사관)씨 부친상=발인 13일(토) 광주시 광산구 송정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941-4400.
- ▲이한기씨 별세 종화·진아·은아·은진·진순씨 부친상=발인 12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 ▲정남석씨 별세 김형영(서울 광진경찰서 경위)씨 모친상 흥기철(머니워크 호남지사 기자)씨 빙모상=발인 13일(토) 서울 경찰대학병원 장례식장 6호실 02-3400-1400.

謹 尙加 故人的 冥福을 봅니다 弔

201호 故오필립 님(여/95세) 女/婿: 정인원/박경민, 김선민/신영희, 김영희/서영철, 김광숙/박성부, 상민, 지현, 태현, 신대기, 성근, 서민지, 상희 *발 인: 2월 1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301호 故박양규 님(여/79세) 子/婦: 홍민희/허순희, 민희/유정옥, 영희/홍남순/송찬호, 민순/송희효 *발 인: 2월 13일 *장 지: 나주 불향선영 *연락처: 227-4382
402호 故조경화 님(여/77세) 子/婦: 정명희/김정준 *발 인: 2월 1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故이관기 님(남/61세) 女: 이영애/진숙 未亡人: 송미선 *발 인: 2월 1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나전근 님(남/82세) 子/婦: 나현준/선순희, 동영/고명화 *발 인: 2월 12일 *장 지: 영락공원 女/婿: 나현우/김명현 *연락처: 227-4000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